

2020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열 B형)

(가) 어느 때 어느 사회에서고 일은 언제나 찬양되고 격려되어 왔다. 사실 일의 내재적 가치를 부정하고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 사회는 있을 수 없다.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생산해야 한다. 일은 바로 이런 생산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는 사회, '일'이라고 하는 생산 활동이 없는 사회에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일은 반드시 노력을 요구한다. 노력은 필연적으로 일종의 고통을 의미한다. 고통을 피하려는 것은 모든 생물의 근본적 이치이다. 그러므로 일이 아무리 미화되더라도 그것은 모든 인간이 반드시 기피하고자 하는 것임엔 틀림없다. 모든 사회에서 일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찬미되고 때로는 성화(聖化)되기까지도 하는 근본적 이유는 일의 위와 같은 성질에 있을지도 모른다.

아닌 게 아니라 20세기에 하나의 철학적 기동으로 알려졌고 사회·문화비평가이기도 한 러셀은 일을 성화하려는 숨은 동기를 폭로하고 일의 내재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부정한다. 흔히 일은 찬미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에서 일의 미덕은 남들의 피땀 흘린 일의 열매만을 보면서 즐기는 사회의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한 속임수라는 것이다. 일은 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견디어야 할 필요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러셀은 일의 미화를 소수의 지배층, 특히 경제적 지배층이 피지배층, 특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 대중에게 적용한 일종의 세뇌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일의 고귀성은 고사하고 일의 내재적 가치, 즉 그 자체로서 갖고 있는 일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러셀의 견해는 옳은가. 아니면 일을 격려하고 일의 고귀성과 성스러움까지를 강조하는 기존의 일에 관한 주장이 옳은가. 양립하는 두 관점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하려면, 즉 위와 같은 두 개의 물음에 대답을 찾아 주려면 우선 '일'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정치 철학자로 알려진 아렌트 여사는 우리가 보통 '일'이라 부르는 활동을 '작업(作業, work)'과 '고역(苦役, labor)'으로 구분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인간의 노력, 땀과 인내를 수반하는 활동이며,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전자가 자의적인 활동인 데 반해서 후자는 타의에 의해 강요된 활동이다. 전자의 활동을 창조적이라 한다면 후자의 활동은 기계적이다. 창조적 활동의 목적이 작품 창작에 있다면, 후자의 활동 목적은 상품 생산에만 있다.

전자, 즉 '작업'이 인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물리적 혹은 정신적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고역'은 그 정반대의 조건에서 행해진 '일'이라는 것이다. (...) 일을 작업과 고역으로 구별하고 그것들을 위와 같이 정의할 때 고역으로서 일의 가치는 러셀의 말대로 부정되어야 하지만 작업으로서 일은 전통적으로 종교 혹은 철학을 통해서 모든 사회가 늘 강조해 온 대로 오히려 찬미되고, 격려되며 인간으로부터 빼앗아 가서는 안 될 귀중한 가치라고 봐야 한다.

(나) 창고에는 늘 물자가 차고 넘친다. 필요한 것은 돈을 낼 필요도 없이 그냥 가져다 쓰면 된다. 사람들은 하루에 여섯 시간만 일한다. 오전에 세 시간, 점심 먹고 두 시간 쉰 뒤 오후에 세 시간. 그 밖의 시간은 무엇을 하건 자유이다. 끼니 걱정할 일도 없다. 마을 회관에서 때마다 식사를 주는 까닭이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분의 음식물을 집에 가지고 갈 수도 있다. 집도 국가가 알아서 마련해 준다. 한마디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이다.

모어가 1516년에 발표한 소설 '유토피아'에 나오는 나라의 모습이다. (...) 유토피아에서는 남

너 모두가 일을 한다. 재산에 기대어 놀고먹는 자들도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 먹고사는 부랑자나 거지도 없다.

일손이 많으니 일해야 하는 시간은 절로 줄어든다. 심지어 하루 여섯 시간 노동도 너무 많게 느껴질 때도 있다. 노동 인구가 넘쳐 나는 탓이다. 이럴 때 정부는 사람들에게 도로를 고치는 등의 업무를 준다. 그마저도 없을 때는 근무 시간을 줄여 버린다. 유토피아에서 일을 하는 목적은 재산을 쌓는 데 있지 않다. 국가의 목표는 시민들이 '육체노동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마음을 닦는 데 쓰도록' 하는 것이다. 유토피아 인들은 죽도록 일에만 매달리는 삶은 노예와 다를 바 없다고 여긴다.

(다) 간단하게 여겼던 옥상의 공사는 의외로 시간을 끌었다. 흙통으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경사면을 맞춰야 하는 것도 시간을 더디게 했고 깨 놓은 자리와 기와의 자리의 이음새 사이로 물이 새지 않도록 면을 고르다 보니 조금씩 더 깨부숴야 하는 추가 부담도 잇따랐다. 이미 밤은 시작된 것이나 진배없어 이웃집들의 창문에 하나둘 불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임 씨는 만족하다 싶을 때까지는 일손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고도 모자라 이왕 덮어 놓은 곳을 한번에 으깨어 버리고 또 새로 흙손질을 거듭하곤 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임 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 같았다.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도 마침내 질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대강 해 두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고요.”

“다 되어 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 드려얹지요.”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보고 나서야 임 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임 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 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 씨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우정(일부러) 지어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었다. 옥상 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드나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정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레 그들이었다. 밤 여덟 시가 지나도록 잡역부 노릇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부러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못했으니까. (…)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노모가 대신 임 씨의 노고를 치하해 주었다.

“젊은 사람이 일도 엄청 잘하네. 늦으문 널 하고 쉬었다 하모 좋을 끼고만 일 무서분 줄 모르는 걸 보이 앞으로는 잘살 끼요.”

노모의 덕담을 임 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들었다.

1.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400~5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 제시문 (나)의 유토피아 인들과 (다)의 임 씨가 하는 일을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작업'과 '고역'의 구분을 비판하시오. (800~9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020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 인문계열 채점기준표

<인문계열 B형>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총점
1번 소문항	이해력	130	250	700
	표현력	80		
	정서법	40		
	분량	-10 ~ -80		
2번 대문항	이해력	60	450	
	분석 및 비판적 사고력 1	125		
	분석 및 비판적 사고력 2	125		
	표현력	60		
	구성	40		
	정서법	40		
	분량	-10 ~ -70		

2020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B형) 모범답안

1.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400~5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제시문 (가)는 일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그 가치를 논하는 글이다. ‘일’이란 인간의 생존과 사회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모든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고통이 수반된다. 전통적으로 일은 그 내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고귀성과 성스러움을 지닌 것으로 찬양되어 왔다. 그러나 러셀은 일을 찬양하는 행위가 지배층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해낸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가)의 저자는 ‘일’을 ‘작업’과 ‘고역’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작업으로서의 일은 자의적, 창조적인 활동이며 작품 창작이 목적이다. 고역으로서의 일은 타의에 의해 강요된, 기계적인 활동이며 상품 생산이 목적이다. 또한 전자가 인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물리적, 정신적 조건하에 이루어진다면 후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가)의 저자는 고역으로서의 일은 부정해야 하지만, 작업으로서의 일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478자)

2. 제시문 (나)의 유토피아 인들과 (다)의 임 씨가 하는 일을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작업’과 ‘고역’의 구분을 비판하시오. (800~9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제시문 (가)는 작품 창작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자의적, 창조적 일을 작업으로, 그렇지 않은 일을 고역으로 양분한다. 또한 전자를 인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신적 또는 물리적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후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고역은 부정되어야 하지만 작업은 찬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시문 (나)의 유토피아 인들과 제시문 (다)의 임 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구분이 지나치게 도식적임을 알 수 있다.

(나)의 유토피아 인들은 모두 공평하게 하루에 일정 시간 동안 육체노동을 한다. (가)의 기준에 따르면 이들의 일은 타의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생존을 위한 필요악, 즉 고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토피아인들의 일은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인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역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다)의 임 씨는 집주인의 요구로 옥상 공사를 시작했다. 임 씨의 일은 생계를 목적으로 한 기계적인 육체노동이다. 또한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된 일이었기에 물리적으로 힘든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가)의 기준에 따르면 이 일 역시 고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임 씨는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창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집중하여 완성도를 높이려 하였다. 이런 점에서 임 씨의 일은 (가)에서 말하는 고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계적인 육체노동이라 하더라도 일의 조건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유토피아 인들과 임 씨의 일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에서 말하는 작업과 고역의 구분은 타당하지 않다. (852자)